

급성담관염 및 담관샘암종에서 진단된 *Neisseria subflava* 균혈증 1례대구가톨릭대학병원 내과<sup>1</sup>,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<sup>2</sup>한대현<sup>1</sup>, 정한택<sup>1,2</sup>, \*한지민<sup>1,2</sup>

*Neisseria subflava*는 그람음성 쌍구균으로 구강의 정상 세균총 중 하나이다. 비병원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막염, 심내막염, 심낭염, 골수염, 점액낭염 등의 원인균으로 몇 차례 보고된 바가 있다. 그렇지만, *Neisseria subflava*에 의한 복부 내 감염은 극히 드물며 2017년 일본에서 *Neisseria subflava*에 의한 급성담관염 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. 저자들은 국내에서 *Neisseria subflava* 균혈증이 동반된 급성담관염 및 담관샘암종을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 73세 남자가 1주일 전 시작된 명치부위 통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. 고혈압 외 다른 과거력 및 수술력은 없었다. 내원 당시 혈압 159/64, 심박수 61회, 호흡수 20회, 체온 36.9도였으며, 조영증강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총담관과 간내담관 확장 및 총담관 안에 덩이가 의심되었다. 혈액검사상에서 백혈구 5,900/mm<sup>3</sup>, C반응단백질 37.9mg/L, 아스파테이트아미노전이효소 273U/L, 알라닌아미노전이효소 263U/L, 알칼리인산분해효소 310U/L,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650U/L, 총빌리루빈 4.9mg/dL, 암항원19-9 94U/mL였다. 자기공명체담관조영술에서 먼쪽 총담관의 조영증강되는 덩이 및 몸쪽 담관 확장 소견 관찰되었다 (Fig. 1A, 1B). 내시경역행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담관 삼관이 되지 않아 피부간경유쓸개관배액술을 시행하였다. 임상적으로 총담관염에 동반된 급성담관염으로 진단하였고, 경험적 항생제로 ceftizoxime과 metronidazole을 투여하였다. 이후 혈액배양검사서 *Neisseria subflava*가 동정되었다. 항생제 투여 이후 명치부위 통증 호전되었으며, C반응단백질과 간기능검사 또한 호전되었다. 또한, 4일 뒤 시행한 추적 혈액배양검사서 음성이 확인되었다. 입원 9일째 피부간경유쓸개관을 통해 총담관 덩이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. 조직검사 결과에서 중분화형 샘암종이 확인되었다 (Fig. 1C) 본 증례는 급성담관염에 동반한 *Neisseria subflava* 균혈증의 국내 보고된 첫 사례로, 향후 *Neisseria subflava* 균혈증 환자의 치료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.

